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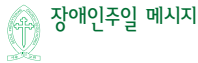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4)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18)

성경은 분명히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보다 더 불편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교회에는 농아인들의 모임인 에바다부가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있는 사랑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어 불편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왼쪽 귀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쪽 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10% 정도가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 이상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크게 외치는 구호로 요란스럽게 이런 사랑의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줄을 서는 일들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안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장애인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크게 칭찬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 오늘은 장애인 주일

##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애를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 등으로 장애인을 격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차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2000년전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장애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다.

서울교회도 교회설립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부’를 1992년 1월 첫 주 3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연 기도회가 장애인 부서의 시초다. 7명의 학생과 43명의 등록예정자들로 개교하였다.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예배다부, 사랑부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 2015 항존직 선출

## 5월 17일(주) 공동의회에서

2015년 항존직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다. 금년은 장로만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1차 투표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19일(주) :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 조직
- 5월 3일(주) : 제직회에서 장로 후보 공천자 선출
- 5월 17일(주) : 공동의회에서 후보자 선출

# 교구특별찬양 준비 시작하다

## 5월 31일(주) 1, 16교구를 시작으로

교구특별찬양 발표 후 각 교구별 선곡 및 준비가 시작되었다.

교구목사가 섬기는 교구별로 연합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형식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드리게 된다.

모든 교구 가족들이 미리 모여 연습할 때부터 서로 교체하며 호흡을 맞추어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 교구만이 아니라 같은 교구목사가 섬기는 인근 교구와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좋은 화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순서는 다음과 같다.

- 5월 31일: 1, 16교구(유문건 목사)
- 6월 7일: 2, 9, 11, 15교구(황광 목사)
- 6월 14일: 3, 8, 14교구(조원영 목사)
- 6월 21일: 4, 5, 6, 7, 10교구(박영준 목사)
- 6월 28일: 12, 13교구(장석남 목사)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5)

### (문 165)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만났습니까?

(답)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달음질하면서 무덤에 이르러 예수부활사실을 확인케 되었습니다(요20:3-4).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구부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도 호기심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판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뒤따라 무덤에 들어온 요한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옷을 그대로 남겨둔 채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즉시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떠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인들이 자기들 뒤를 따라왔다는 생각조차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떠난 후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하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시체를 누가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고 마리아는 얼마동안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누웠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찾았다고 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지만 뒤를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그들은 예수의 음성도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므로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야 주님을 살아 계신 주님으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11제자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눅24:34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마가의 집에 모인 제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작은 하트? 아니면?



얼마 전부터 SNS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작은 하트'라는 손동작이 유행되고 있다. 간편하고 귀엽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 손동작을 바라보는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그 손동작은 농인들 사이에서 '동성애' 등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는 그들의 언어이자 그들의 언어수단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다른 표현이다. 그들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간과하는 것은 서로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배려를 잊은 것은 아닐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인종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고 놀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육 시켜야 한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자녀가 모르고 사용하는 작은 손동작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 서울교회 성도들의 작은 변화와 배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실천의 시작이다.

< 편집부 >



천국시민양성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서울교회

박권선, 양현주 성도(15-8다락방)

서울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가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으로도 서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다가왔지만 단 한분의 성도님을 위해서라도 항상 봉사자들이 계셔서 수화로 예배를 섬기시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서울교회를 들어와 주일날 1층에 사랑부 지체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건장한 사랑부 학생들이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과 애정어린 몸 싸움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 출석하는 일은 생각지

도 못했습니다.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도 먼 곳에 위치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10월부터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여서 자녀들과 아내는 가까운 서울교회로 나가고 저는 원래 다니던 교회로 출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 2015년 1월 첫 주일에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뭔가 아버지 역할을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서울교회로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1월 마지막 주에 교회등록을 하고 새가족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받는 동안 새가족부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새가족부 선생님들께서 매주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로 전혀 낯설음 없이 서울교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황 광 목사님으로부터 ppt로 잘 준비된 8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는 동안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교회 여러 프로그램과 비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주일날이 기다려 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 자녀들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겨울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각 부서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너무 재밌어 하면서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만한 서울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교역자님들과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어린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울교회가 더욱 하나님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데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대석 집사 (2교구)

성도 여러분! '장년부 오후반'을 알고 계십니까?

장년부는 오전 1부 예배를 마치고 분당에 모여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오전 장년부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후에도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곳이 바로 '장년부 오후반'입니다.

장년부 오후반에는 오전 성경공부모임과는 다른 특별한 점은 "신앙가족공동체"로서 가족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학교라는 것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유일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30대 40대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어린 아이들 때문에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감활동놀이를 할 수 있는 '토들러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들이 성경공부 모임을 갖는 동안, 만2세~3세의 아이들은 토들러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을 자극시키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 세라 목사님과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희 장년부 오후반에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성경공부도 하는 또 다른 가족을 찾기위해 오픈하우스를 개최하며, 시간은 4월 26일(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격려해가는 가족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없는 신혼가정도, 아이들이 큰 가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장년 여러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픈하우스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역을 더 힘차게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서울교회 그리고 당회, 선교위원회, 인도 기도팀, 하계 인도 비전트립팀 그리고 성도 여러분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 구입을 위해 약 7개월간의 리서치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심으로 지난 3월 13일에 아가페 센터(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건립할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부지 평수는 One Acres Six Guntas(1,400평)입니다. 3월 30일에 교회 건축과 기독교 학교 건축 시작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건평은 60평이며 기독교학교는 먼저 교실 여섯칸을 지어 네칸은 초등학교 교실로 두칸은 사무실과 특별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선교헌금으로 교실 세칸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교실 세칸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적벽돌로 벽을 쌓고 천장은 슬러브(몰딩)가 아닌 트러스로 지붕을 만듭니다. 기독교 학교는 차후에 3층까지 건축해야 하기에 슬러브(몰딩)로 건축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둥, 천장 모두 콘크리트로 작업하여 건축하기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기설치, 우물파기, 펜스(담) 등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나가나할리 교회에서 아가페 센터 까지는 차로 2시간이 소요되며 건축을 위

해서 한 주간에 3~4일 다녀옵니다.

저희들은 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완공되면 나가나할리 교회는 인도 목회자에게 이양(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선교지 아가페 센터로 이주하여 선교 사역을 더 힘차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완공되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우상식, 김정옥 올림

### - 기도 제목 -

1. 인도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2. 아가페 교회 건축을 위해서!
3. 아가페 기독교 학교 건축을 위해서!
4. 니모처나 교회를 위해서!
5. 딘네 교회(호렘 센터)를 위해서!
6. 나가나할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7. 일곱 교회 건축을 위해서!
8. 하계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9. 자녀의 건강과 진학을 위해서!
10. 서울교회를 위해서!

##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사랑부(부장:강성은집사)와 에바다부(부장:강낙훈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랑부는 난타연주 "나로부터 시작되리"와 워십 "또 하나의 열매를 바리시며"를 찬양하고, 에바다부는 수화찬양 "감사함으로"를 청년부원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부원 전원이 찬양드린다.

## 나눔의 집

봄이 되니 나눔의 집에 성도들의 발걸음은 빈번한데 상품의 구색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놓여있거나, 혹은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눔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21일(화) 새로운한국을 위한국민운동 평신도지도자협의회 임원회에서 설교한다. 4월22일(수) 서울강남노회 전 회장단과 현 임원 간담회에 참석한다.

■ 전사회 : 13교구 김경미 권사4.14(화)-5.3(주)햇빛 트리니티 갤러리(서초구 양재동 55 햇빛회관1층)

■ 연주회 : 김현정 집사(2부예배 오르가니스트), 윤주일 집사(팀파니스트) singing with percussions 4.21(화) pm 7:30 영산아트홀

■ 득녀 : 12교구 김관섭 성도 하혜심 집사 가정 (하민선 정로 남태순 권사 자녀 가정)

■ 주일식당봉사 : 이삭 선교회(4.19) 루디아 전도회(4.26)

■ 금주의 식사 제공 : 12교구 임대중 집사 남재은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연합한 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2. 교구별 특별찬양 준비를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하나되게 하소서
3. 새가족들을 환영하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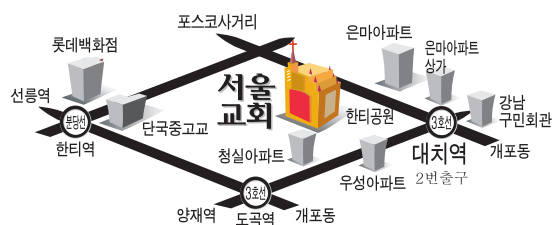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 ① 주일예배 (어린이와 성도 연합예배)
- ②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식
- ③ 유치원 졸업식
- ④ 교회부지와 기초공사 시작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